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10월 15일(월) 배포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김현주 선임전문원 Tel.02-3299-1263

한-WB 공동 KSP 지식공유포럼 KSP를 통한 개발정책 논의의 지평 확대

- 기 간: 2012년 10월 15(월) ~ 16(화)
- 장 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주 최: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기획재정부 · 세계은행

세션 4. 국제개발논의 개발모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할 것인가? 패널 토론 요약

토론 1. 노부히로 키요타키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나 금융위기의 경우에서 보듯이 시장체제가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님. 존 스튜어트 밀, 슈페터 등의 학자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비시장적 요소의 힘에 주목하기도 함. 적절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며 올바른 제도와 기관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시장이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도 구축을 통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함. 경제학적 정치학적 관점에서 지식의 일방적 이전이 어려우나 우리는 지속적인 경험과 실패, 실험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함.

토론 2. 제니퍼 위드너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제도구축이 더욱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우선사항임.

토론 3. 마이클 크리머 하버드대학교 교수

- ☐ 서울 개발컨센서스가 실제적인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공통 분모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토론 4. 존 윌리엄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 널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이 컨버전스를 이루기 위해 인적자본 육성, 수출 중심의 교역제도, 인프라 구축, 저축증대 정책 등이 중요함.

토론 5. 현오석 KDI 원장

- ☐ KDI는 KSP사업을 통해 여러 국가와 협력을 이루고 있음. KSP사업은 기술적인 지원을 3가지 단계 즉 연구, 보급, 컨설팅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임. 협력대상국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며 현지사업자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감. 개도국이 사업진행의 주인공(ownership)이 되는 것이 중요함.